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9. 6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터키, 안전지대 통제권 확보 명분으로 군사작전 시사
 - 9.1 AFP는 「에르도안」 터키 대통령이 미국과 합의(8.31)한 시리아 안전지대를 터키가 통제하지 못하면 조만간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
- 英, 호르무즈 해협 정찰·감시 위한 드론 투입 검토
 - 9.2 각국 언론은 영국정부가 자국 민간 선박들에 대한 이란의 나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쿠웨이트 기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호르무즈 해협 감시 및 정찰 임무수행을 위해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

중동

- 시리아, 美 공습으로 알카에다 40여명 사망
 - 8.31 현지언론은 美軍이 시리아내 마지막 반군 근거지인 북서부 이들립주를 공습하여 최소 40여명의 알카에다 간부급들이 사망했으며, 정부군-반군간 휴전협정에도 무력충돌은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
 - 이란, 미국의 ‘혁명수비대 테러지원 첩보 포상금’에 강력 반발
 - 9.5 이란은 전날 미국이 혁명수비대에 테러자금을 지원한 법인 등을 특별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, 혁명수비대 관련 첩보에 포상금*을 지급한다는 방침에 대해 ‘간첩행위에 포상금을 주려는 것’이라며 비판
- * 원유밀수 같은 혁명수비대의 테러지원 첩보 신고시 최고 1,500만달러 포상금 지급

미 주

- 美 뉴욕, 테러 모의 혐의로 ISIS 동조 10대 체포
 - 8.29 ABC뉴스는 ISIS에 동조하는 파키스탄 출신 이민자 「초드리」(19세, 男)가 미국 뉴욕 퀸스지역에서 홍기난동을 획책하다가 테러 모의 혐의로 안보 당국에 체포됐다고 보도
- 美 샌프란시스코,全美총기협회(NRA)를 국내 테러단체로 지정
 - 9.3 NYT는 샌프란시스코市 의회격인 감독위원회가 NRA를 ‘국내 테러 단체’ 규정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다른 지자체의 동참을 촉구했다고 보도
 - * 감독위원회(board of supervisors)는 市의회와 마찬가지로 입법·행정·준사법권한 보유
- 美 월마트, 총탄 판매 전면중단 결정
 - 9.3 AFP는 월마트가 ‘엘파소 총기난사’(8.3) 사건을 계기로 총탄 판매를 중단하고 매장內 총기소지를 전면 금지한다고 보도
 - * 9.4 美 월마트에 이어 2위 업체인 ‘크로거’도 쇼핑객 대상 총기 휴대 금지조치

아 · 태평양

- 뉴질랜드, 크라이스트처치 테러 영상 보유자 기소
 - 9.2 현지 언론은 경찰이 크라이스트처치 테러(3.15) 공격 당시 촬영된 생중계 영상을 보유한 혐의로 자국민 35명을 기소했다고 보도
- 아프간 근무 전직 美대사, 성급한 美軍 철수 위험성 경고
 - 9.3 NBC는 아프간에 근무했던 전직 美대사 9명이 탈레반 반군과 아프간 정부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美 행정부가 미군을 철수시킬 경우 아프간이 전면적 내전에 빠지고, 또다시 테러범들의 피난처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고 보도

아프리카

- 케냐 정부, UN의 ‘알샤바브’ 테러단체 지정 거부에 유감 표명
 - 8.29 케냐 외교당국은 “알샤바브를 알카에다·ISIS 등과 함께 테러 단체로 지정해달라”는 요청을 거부한 UN안보리의 결정에 유감 표명

러시아, 베슬란학교 인질사건

- '04.9.1 ~ 3 러시아 연방의 자치공화국 북오세티야* 베슬란 지역의 한 학교에서 인질범 34명이 어린이 700여명 등 1,100여명을 인질로 잡고, 체첸 독립 등을 주장하다가 특수부대에 의해 진압



* '91년 구소련의 해체와 함께 자치공화국으로 되었으나, 국제법상 국가의 지위는 없는 상태

- 진압작전 中 테러범 30명과 어린이 186명을 포함한 인질 334명이 사망하고, 500여명이 부상

* 개학 첫날 열리는 학교행사 참석을 위해 많은 학부모들이 교내에 모여 있던 상황

- 조사 결과, 인질범 34명 中 아랍출신 10여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, 사건 배후에는 체첸 반군의 영웅으로 간주되는 「샤밀 바사예프」와 그 추종세력들이 직접 개입했던 것으로 파악

- 진압작전 직후 「푸틴」 대통령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는 한편, 자국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

- 同사건은 '02.10월 모스크바 극장 인질사건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(사망 129명)를 넘는 역대 최대 희생자를 낸 사건으로 기록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< 파이프 폭탄(Pipe bomb) >

- (정의) 사제 폭발물의 한 종류로, 화약류 등 폭발성 물질의 폭발압력을 증대하기 위해 금속성 파이프를 용기(case)로 사용하는 폭발물
- (구성) 기폭장치, 주장약, 밀폐할 수 있도록 가공된 금속성 파이프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되며, 살상력 극대화를 위해 파이프 내부에 못·나사·금속류를 넣거나 파이프 외부에 부착
- (원리) 타이머 등 기폭장치 작동으로 주장약이 폭발,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여 응축되다가 임계압력 도달시 파괴되면서 폭발력 및 비산되는 파이프 조각과 금속류가 주변 파괴 및 살상
- (비교) △응축압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'압력밥솥폭탄'과 유사, △비산하는 못·금속조각으로 살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'네일폭탄'과 흡사

